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瑞
印刷人 崔 瑞 泳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만남의 行事 풍성 (사진) ①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法大총회 ② 權相澈 동문을 새회장으로 선출한 師大총회 ③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行政大學院총회 ④ 학술교류의 신기원을 연 母校-UCLA간 인공위성을 통한 첫 강의 모습.

同窓會 발전은 母校의 榮光

冠岳春秋

지난달에는 많은 單科大學 또는 大學院 동창회에서 定期總會를 가졌다. 22일에는 行政大學院 동창회가 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하고, 24일에는 法大 동창회가 任員改選을 했으며, 25일에는 齒大 동창회가 열렸고, 26일에는 師大 동창회가 새 名簿를 배포하고 任員을 개설했으며, 27일에는 工大 동창회가 停年退任 교수에게 紀念牌을 증정하고 총회가 끝났던 관악산 樹木園으로 登山 大會를 가졌다. 그리고 30일에는 環境大學院 동창회가 任員 개선을 했다.

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近者에는 서울대학교 同窓會報의 활성화와 名簿 발간에 힘입어 母校 출신들의 전체 同窓會 소속감이 짙어지게 되었다. 同窓會 각자가 직접 소속되어 있지만, 그를 각자가 직접 소속되어 있는 單大(院) 동창회의 活性化는, 앞서 언급한 諸子의 견해에 비추어, 곧 서울대학교 同窓會의 繁榮의 核 구성을 한다고 하겠다.

6월의 飛翔

지난 4월26일 오전 9시 母校 趙完奎 총장 및 文教部 관계자, 學術振興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母校-UCLA간의 衛星通信網 개통식이 열렸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兩校 총장의 祝辭가 영문으로 교환 電送되고, 양쪽 캠코더로 全景 사진도 소개됐다.

두 대학은 1차 연도인 90년에는 90시간의 畫像 수업을 계획, 母校에서는 주로 韓國의 言語學, 歷史學, 國樂을, UCLA에서는 言語學 분야의 강좌를 각각 7명과 5명이 담당하기로 했다. 양쪽의 時差를 감안하여 母校에서는 오전 9~11시에, UCLA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4~6시에 講義를 진행한다.

母校에서는 이 실험적 畫像通信授業이 성공되면, 점차 수업科目 확대는 물론, 獨·日·英·中·蘇 등의 대학과도 通信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것은 人力의 직접 교류의 限界性 타파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으로 電子科學의 힘에 의한 하나의 飛躍이다. 6월은 터를 다지고 飛翔하는 달이다.

서울대학교의 同窓會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회원들은 또 각 單科大學(院) 동창

親睦・和合으로結束과시

工大法大師大 齒大 行政大學院 총회 잇따라

任員개선, 停年退任교수에 感謝牌도

싱가포르 5월에 單大 총회가 잇따라 열려 동문들의 결속력을 한껏 과시했다. 22일 열린 行政大學院총회를 시작으로 24·25·26·27일에는 法大師大 工大 工大 총회가 계속 열렸다.

▲行政大學院총회(회장 俞尙根)는 지난 5월 22일 서울문화회관(신강당)에서 9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黃斗英사부의 회장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俞尙根은 인사말을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동문 여러분들이 하고한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는데 회장으로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새로 入閣한 동문과 새로이 이사로 임명된 동문들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하는 동창회를 만들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총회는 韓光玉(국회노동위원회)·鄭東星(체육부장관)·鄭東星(체육부장관)·鄭東星(체육부장관) 등 1백여명의 대표가 잇따라 열려 동문들의 결속력을 한껏 과시했다. 22일 열린 行政大學院총회를 시작으로 24·25·26·27일에는 法大師大 工大 工大 총회가 계속 열렸다.

▲行政大學院총회(회장 俞尙根)는 지난 5월 22일 서울문화회관(신강당)에서 9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黃斗英사부의 회장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俞尙根은 인사말을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동문 여러분들이 하고한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는데 회장으로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새로 入閣한 동문과 새로이 이사로 임명된 동문들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하는 동창회를 만들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치대 90년도 정기총회 광경

定總후 첫會長團회의

10억基金 造成등 현안 논의

本會會長團 회의가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문화회관(신강당)에서 崔主編 회장이 주재로 개최되었다.

지난 3월 총회에서 새 선출된 후 첫 회의를 가진 이날 모임에서는 동창회의 운영기조와 특별히 10억기금의 조성문제에 대해 김진환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李壽成 회장이 부회장은 10억기금의 조성문제에 대해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수연구비 지원'이라고 밝히고 회장단에서 정기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金性澤 회장이 '한반도사업재단'의 설립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모교 발전에 힘쓰는 동문들이 회장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의 제반 현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해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國會議長에 朴浚圭 동문

民正党 대표위원 역임한 7選



지난 5월 20일 열린 시국회에서 朴浚圭 동문이 제14대 國會議長으로 선출되었다.

7選의 관공을 자랑하고 있는 朴浚圭는 48년 모교 文理大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美亞리온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1년 11월 1일부터 1988년 11월 17일까지 8년간 5·17 이후 정치규제에 묶여 美亞리온대 소·부총리대 東北亞리온대 소장을 맡았다. 88년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고 인사한후 '앞으로 동창회의 2억 기금 조성'에 국내의 모든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라는 부탁을 하고 당부했다.

또한 金明國(모교치대)는 '앞으로 동창회는 대학을 명예회장은 총회를 통해 '모교 발전을 위해 이 재가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동문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여는 등 학회 활동을 보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朴浚圭는 '이 재가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동문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여는 등 학회 활동을 보려고 있다'고 밝혔다.

2 회大會 6월 24일 耳順同門테니스會(회장 馬景錫) 제2회대회가 오는 6월 24일(日) 개최된다. 오전 8시부터 관의 캠퍼스 코트에서 열리게 될 이번 대회에 회원들은 물론 동문들이 많이 참가를 바란다. (연락처: 547-5887)

憲法裁判所에서는 森通罪가實
法違反이다 아니다。口頭辯論
이 행하여진다단것을 면
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法과 道德
刑罰에 관한 문제를 깊이생
각하게 만든다。과거에는 法
이라고 하면 刑法을 생각하
게 되고 法은 곧 刑罰을의
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하여 法은 倫理道德의
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으로 생각하였는데 아직이
사람은 계속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倫理·道
德의 땅에 들어섰다고 생각
하면 法을 개칭하여 倫理
처하는 것을 能事로 하였고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man with dark hair and thick-rimmed glasses. He is wearing a dark suit jacket over a light-colored shirt and a dark, diagonally striped tie. He is pointing his right index finger towards the viewer. The background is slightly out of focus, showing what appears to be a window with curtains.

金 哲 洙
〈56년 法大卒・母校教授
本報 編輯委員〉

[illegible]

면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正부와 副任하고 金品
 의의를 收受・要求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의 하한
 역 또는 10년의 하한 資格停
 止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不正銀行長을 사표만 내면
 그리고 몇년만 있으면 집
 백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화에 기강이 잡히지 않
 는 것은 法이 없어서가 아
 니라 이를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收賂事實
 이 공자의 사실인 경우에도
 檢察이 수수반과하고 있기때
 문에 靑瓦臺特別司正班이
 기게 된다. 처음에는 특별사

刑法の 收賂犯으로 모은 收賂者를 檢査하고 公證하게 처벌한다면 收賂犯은 없이질수 있을 것이다. 兇벌의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檢率이 兇어지고 집착한 경우에도 兇刑의 收賂額을 구형할 수 없 어 2億의 收賂額을 2천만 원으로 낮추어 구형하는 것 이 행해진다면 이는 法の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特別正班을 비 롯한 사정기관은 信實必罰의 원칙을 확립해야 하겠다. 不正腐敗官원이 누누하는 것 은 당해부처장관위원들의 제언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하고 있다. 文化大革命期의 10년 동안 법제는 파괴되고辯護士制度는 폐지되고 있다. 法의 正당한 절차도 부정되었다. 그러나 1979년에 社會主義法制의 건설에 박자들이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經濟犯罪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反汚職 反收賂展示會를 개최하여 各부들의 思想改造를 하고 있다. 中國의 刑事訴訟法은 제4조에서 모든 公民은 法의 適用에 있어서 法律平等이며 法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封建制下에서는 官僚階級에게는 형벌

없어 숙청을 해야 할 것이
다. 그 동안 3共 이후 6共
에 이르기까지 公務員社會는
무풍지대였었고 肅正의 매스
가 가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無事安逸 풍조가 횡행하고부
조는 패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盧大統領은 지난 5·7선
연에서 연말까지 社會的經
濟的安定을 이루하겠다고 다
짐하였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公職社會가 國民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하였다. 공직사회가
부패하고 무사안일에 빠져있
는 경우 대동정의 改革意志
도 아래로 확산될 수 없는

官職의 大小 지위의 高하를
를 불문하고 刑法을 위반하
면 모두 刑事責任을 지게 되
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천원짜
리우표를 횡령한 集配員은 구
속기소하되 5백만원의 횡령
은 區廳長은 기소하지 않
것을 말하여 限界效用論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區廳
長에게 5백만원의 集配員의
5백원에 해당한다든지 노리

政을 발탁하고國民에 대한忠
誠을 나타내나公職者로서의 사명
感이 없는 무사안일한者다
관직의 도태하는 방법을 마
련해야 하겠다. 물론職業公
務員에게도 신분보장을 해주
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月給과금의 봉사를 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總
體的危機狀況의 극복은 불가
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

을 주고 있다. 公務員社會에
서는 이제 공무원노조의下
限線은 5백만원이라고 보고
그 이하의 노조를 면은 격
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免罪

정반의 활동이 보도되니 이
제는 檢察機能을 司正班에서
맡을 수 있다면서 비판적
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檢
察이나 監査院이나 自體監査

의견을 들어 부정부패공
무원은 가차없이肅正하고收
賂公務員은 전부 처벌하여공
무원사회의 기강부터 바로잡
아야 한다.

다. 그러나 위물이 말아야
 랫물이 말을 수 있는 것이
 다. 高位公務員의 뇌물주수행
 위가 미치는 害毒은 크기때
 문에 高位公務員의 범죄행위

여의한다. 法律이 국민간의
정이나 국민의 輿望과는 관
계없이 사회생활의 질서를과
괴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
繼母嫡子間の 母子 관계를 부
호하는 것이나 長男의 戶主

고 있다고 한다. 刑法이 보통 죄를 규 정하고 있고 特定犯罪加重處罰에 관한 法律이 2백만 원 이상 2천만원미만의 보통 죄를 받은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이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檢察의 직무유기라고 하겠다. 그 동안 政權交替期를 들떠 공무원의 受賄죄의 단속이 되고 있고 그 보통의 수도 이처럼 늘었다고 있는데도 檢察이 起訴한 것은 극히 적었고 特加法에 따라 收賄罪로 死刑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特定經濟犯罪加重量刑에 관한 법률이 보

있다. 司正班의 행위는 파
임행위가 될 것이나 이들이
제 기도를 다하고 있지 못
할 때에는 행정부의 最高官
任자인 대동령의 司正의 칼
을 뽑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대동령비서실의 特別
司正班은 大統領特命事項을 각
司正機關에게 傳達하고 그特
命事項이 잘 시행되고 있
는가를 감시하고 수시로 그결
과를 대동령에게 보고하여
할 것이다.

刑罰의 집행에만 法的 권
위가 서는 것은 아니다. 법
은平等하게 적용되어야 하
고 犯法事項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현재의

별한 뒤 臺灣에서는 부처님
무원이 적어졌다는 것은 알
려진 사실이며 신가톨릭에서
公務員의 청렴도가 높은 것
은 信實公勤의 결과이다. 한
국에서 經濟活動을 하려면
물론은 건우터 배워야 한다
는 外誌의 報道는 한국인전
체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묵
인하지 않는다는 세력이다
는 경우 拔本塞源하여야 한
다. 中國에서도 汚職 收賂等
의 惡習根리가 깊으니 고민
을 하고 있는데 당시 經濟
事犯을 적발하여 엄중한 처
벌을 하고 있다. 또 犯罪活
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法體制의 宣傳活動을 중

이와 함께 고위관원에게서
 그 처임과 지위에 알맞은俸
 給과 辦公費를 주어야 할것
 이요, 局運營費 課運營費까지
 다되어 있다. 課은 課長 局
 은 局長을 자체로 맡아지
 任하는 자인즉 부장후배에
 지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제 우리나라 財政規模도
 커졌으므로 적어도 고위
 報酬의 機關運營費 課
 해야 하겠다. 과거처럼 고위
 원에게 일임적인 俸給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生活給을 지급하면서 고
 무원이 致富를 위해서 부
 課運營費를 하는 경우 가차

法은 社會平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國際法은 국
 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
 단이다. 법을 통한正義實現
 법을 통한 公共福利增進, 법
 을 통한 社會安全유지, 법을
 통한 世界平和유지가 법의목
 적이다. 法이 法으로서의 구
 실을 다할 수 있도록 爲政
 者는 법을 제정하고 법의집
 행자는 公平無私하게 법을집
 행하며 信實必罰을 기해야 하
 겠다.

人文 계열

현재 모교에는 13개의 인문계열 연구소가 있다. 이중 3개의 연구소(인문·사회·문화·인문·과학·인문·과학)는 본교에서 학부생이 입학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 인문계열 연구소의 교수진에 의해 지도된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교수진은 대학원에 진학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 인문계열 연구소의 교수진에 의해 지도된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교수진은 대학원에 진학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 인문계열 연구소의 교수진에 의해 지도된다.

母校 研究所 실태

企劃取材

(2)

러한 문제점을 지시, 문제제기를 했고 대학측도 이에 공감하여 인문과학연구소가 설립된 후 부속연구소로 승격될 예정이다. 그간 자연과학



▲ 모교 인문계열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行·財政상태 劣惡、高級인력 死藏

28개 機關중 본부 直轄은 불과 3개소뿐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문과학은 國家발전의 기초, 꾸준한 支援있어야

인문계열 연구소의 실태는 외국이나 타대학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 인문과학연구소의 경우 100권 출간목표의 고전총서(사진)가 예산지원부족으로 7년에 걸쳐 고작 9권을 발간하는데 그치고 있다.

名譽教授
칼럼



李 承 院
〈前 母校 工大至今〉

大學教育의 목적은 다
양하게 구분할 수 있
지만 여기서 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기, 연구와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학을
구분하는 것이
기르 함이다.

이다. 이 새로운 진리
와 법칙은 교과서에만
임되고 교과과정을 개
편하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로운 진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여 大學教育
은 물론 발전하고, 우
수한 학생이 배출되

것이다

大學의 研究활동

[illegible]

教授는
꾸준하
가결한 요로서, 연구
하지 않는 대학·연구
하지 않는 교수는 인
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대학이 그 목적을 이
를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잠깐 美國「
위스콘신전립회사」의

교육자 연구통해

장발단(이로) 湯水發電
를 사용하든 長發단(이로) 湯水發電
고 있는데, 이 대신 전
전기장(이로) 湯水發電
超電導체로 湯水發電
들이 직접 湯水發電
로 전력을 湯水發電
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효율이 양발단
에 비해 훨씬 높다.

이전에

이로인한 眞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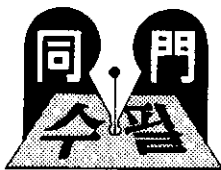
이 하로인한 것은 인간이
이 피로인한 것은 인간이
재까지 50년의 역사
20년의 박사가
영고의 사실이다
이산 대한 불교
학원(학원) 영고 영고
학원이 영고의 역사
전통 대한 대한 고
영고 영고 대한

子者
 學內야
 식돼야 할 것이다. 주
 대학에는 교수가 있
 야 하고, 교수는 학
 이기 위해 연구를
 속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연구결과로
 대학원생이 발표하
 것을 인정해야 한
 그리고 대학원생이
 유시설의 곧 연구

現代學院生 選拔제도

에 있어서는 생각한 대로 개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밤에 눈을 떠보면



琴 章 泰
(66년文理大卒
母校人文大 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불행하여 올랐
로 내려온 두 시
도의 신길이다. 짙
발길이지만 산
시가지의 동물이
차라하면 도시
에서 한 마리의
을 내려보내지
한데는 부한산
가 깔깔한 오솔과
적소에 피들처럼

다. 특히 大學院 과정에 있어 그렇다. 대학에 있어서 연구 활동이 필요한 둘째 이유는 대학교수가 교육자이기 이전에 學者야 한다는 것이다. 학자라는 것은 자기 전 공분에 대해 부단히 연구를 수행, 학문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는 대학 원생과 더불어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수는 항상 새로운 眞理와 法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세 번째 이유는 大學院 學研究가 단순히 학문 발전이나 대학교육 수준 제고의 향상, 학생에 대한 敎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국가 사회,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 대학에 있어서 연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大學研究活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아래면 그 산과 물
가. 화교에서는 남
로. 관악산이요. 왕
다가서 있고. 집에서
북쪽으로 한강이 더
말을 흐르지만. 발
자주 가지 않은 것
왜인가. 관악산과
지도 별채. 여섯하루를
오는데 산은 열여섯
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는 무릎을 보하고
다. 그래도 관악산과
강이 나옴. 한 천
의 일출을 얻는다. 지
을릴 주. 있게. 해준다
천마루. 노근. 생

同門수필
 同門수필

[illegible][illegible]

리 원기를 회복
 산을 하며 몸통
 하기 시작하였
 려나는 그와
 한잔의 잔은 보
 을 잊고 단상
 행했다.
 하루 일과가
 오후 5시쯤 대하
 만나 점심
 라가기 시작하



琴 章

학과 생애의
변어가는 것 같
까. 메피스토펠
우스트를 끌고
걸고,
오느날 아침
친구의 전화를
를 위해 그
일편으로 출국
야기다. 완쾌하
오기를 기원하
한다면 그 전
도일에서 둘
바라던 나이가
나 친한 친구
한 이 때 새
절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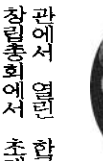
수령을
고나할
가파
한
갑자기
치
아침
는이
돌아
과분
대모라
오기를
들어
수충
스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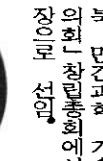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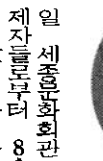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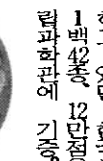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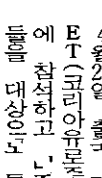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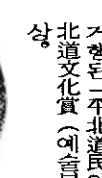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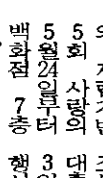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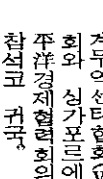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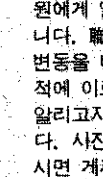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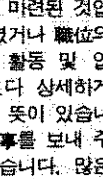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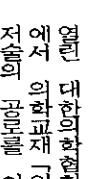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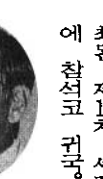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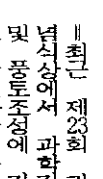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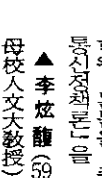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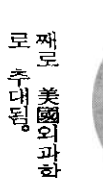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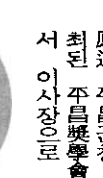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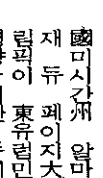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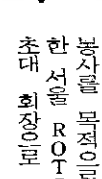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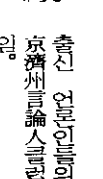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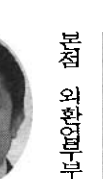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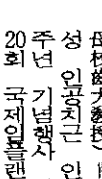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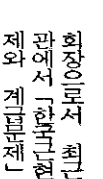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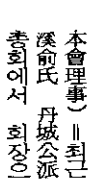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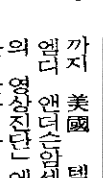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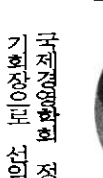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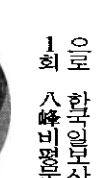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金承鎰 (48년) 齒
大宰・인성
치과의원장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소개
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
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
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
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
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702) 2233~5
(717) 8536~7

母校医大 약리학교실 徐維憲 교수

[illegible]

분자진정검사를 하 연구소.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분
자생물학센터의 한 연구
원 재 모교 醫大 신장과
화 연구소 분자생물학 연
구 부장을 역임해 오면
서徐동운이 관심을 가
진 것은 유전학화를 되
신경 연구에 활용하는 방
법이었다고.

지금까지 국내 중로
가 상용화된 인물은 이
즉시적인 효과를 기대
하는 분야에만 연구자
원이 집중돼 기초과학

따라 제압하고 있으나
우선 국내 연구기관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
다』고 밝혔다.

올해 아드레날린호르몬
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호
르몬인 코티솔을 인체
가 위기관을 느낄 때만
이 호르몬이 신장에서
을 분비해 내는 기작을
확장하기가 목표였다고
따라서 아드레날린호
르몬을 합성하는 효소의
DNA 염기서열을 찾아
가 시키고 염기서열을

— 歐美등 「유전자 銀行」에 정식登錄

는 것인데,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그 해결
의 실마리가 잡히게 된
다.

미국신정학회 • 국제신
연구회 • 국제신정학회
• 국제부자살학회 • 국제
정화위원회에서 국제적인

1. 金剛勳 記者 2. 金剛勳 記者 3. 金剛勳 記者 4. 金剛勳 記者 5. 金剛勳 記者 6. 金剛勳 記者 7. 金剛勳 記者 8. 金剛勳 記者 9. 金剛勳 記者 10. 金剛勳 記者 11. 金剛勳 記者 12. 金剛勳 記者 13. 金剛勳 記者 14. 金剛勳 記者 15. 金剛勳 記者 16. 金剛勳 記者 17. 金剛勳 記者 18. 金剛勳 記者 19. 金剛勳 記者 20. 金剛勳 記者 21. 金剛勳 記者 22. 金剛勳 記者 23. 金剛勳 記者 24. 金剛勳 記者 25. 金剛勳 記者 26. 金剛勳 記者 27. 金剛勳 記者 28. 金剛勳 記者 29. 金剛勳 記者 30. 金剛勳 記者 31. 金剛勳 記者 32. 金剛勳 記者 33. 金剛勳 記者 34. 金剛勳 記者 35. 金剛勳 記者 36. 金剛勳 記者 37. 金剛勳 記者 38. 金剛勳 記者 39. 金剛勳 記者 40. 金剛勳 記者 41. 金剛勳 記者 42. 金剛勳 記者 43. 金剛勳 記者 44. 金剛勳 記者 45. 金剛勳 記者 46. 金剛勳 記者 47. 金剛勳 記者 48. 金剛勳 記者 49. 金剛勳 記者 50. 金剛勳 記者 51. 金剛勳 記者 52. 金剛勳 記者 53. 金剛勳 記者 54. 金剛勳 記者 55. 金剛勳 記者 56. 金剛勳 記者 57. 金剛勳 記者 58. 金剛勳 記者 59. 金剛勳 記者 60. 金剛勳 記者 61. 金剛勳 記者 62. 金剛勳 記者 63. 金剛勳 記者 64. 金剛勳 記者 65. 金剛勳 記者 66. 金剛勳 記者 67. 金剛勳 記者 68. 金剛勳 記者 69. 金剛勳 記者 70. 金剛勳 記者 71. 金剛勳 記者 72. 金剛勳 記者 73. 金剛勳 記者 74. 金剛勳 記者 75. 金剛勳 記者 76. 金剛勳 記者 77. 金剛勳 記者 78. 金剛勳 記者 79. 金剛勳 記者 80. 金剛勳 記者 81. 金剛勳 記者 82. 金剛勳 記者 83. 金剛勳 記者 84. 金剛勳 記者 85. 金剛勳 記者 86. 金剛勳 記者 87. 金剛勳 記者 88. 金剛勳 記者 89. 金剛勳 記者 90. 金剛勳 記者 91. 金剛勳 記者 92. 金剛勳 記者 93. 金剛勳 記者 94. 金剛勳 記者 95. 金剛勳 記者 96. 金剛勳 記者 97. 金剛勳 記者 98. 金剛勳 記者 99. 金剛勳 記者 100. 金剛勳 記者

군·조은주 (89년 農大卒)
 양 6월3일 오후 2시30분
 △윤재준 (87년 美大卒)
 군·이순영 (88년 美大卒)
 양 6월9일 오전 11시30분
 △오덕수 (86년 農大卒)
 군·한인도양 6월9일 오후 1시
 △김홍민 (87년 人文大卒)
 군·박경숙양 6월9일 오후 2시30분
 △귀종섭 (85년 農大卒)
 군·홍순진양 6월9일 오후 4시
 △김재철 (90년 工大卒)
 군·이미자양 6월9일 오후 5시30분
 △하성봉 (87년 人文大卒)
 군·박근매양 6월10일 오후 1시
 △이기한 (89년 大學院卒)
 군·김현숙양 6월10일 오후 2시30분
 △김원중 (82년 師大卒)
 군·이봉선 (89년 大學院卒)
 양 6월15일 오후 1시
 △안효상 (89년 人文大卒)
 군·아미경 (89년 人文大卒)
 양 6월16일 오후 2시
 △홍석륜 (88년 自然大卒)
 군·김종욱 (88년 自然大卒)
 양 6월17일 오후 1시
 △소정선 (84년 農大卒)
 군·현명자양 6월22일 오후 12시30분
 △이충훈 (85년 工大卒)
 군·서순옥 (84년 家政大卒)
 양 6월24일 오후 12시30분
 △김현석 (86년 工大卒)
 군·김수진양 6월30일 오전 11시30분
 △김도형 (87년 農大卒)
 군·하수진양 6월30일 오후 2시30분

5월14일 오후 7시 가회 회장
 으로서 30분 세조문화회관 소강당에
 서 제34회 창작곡발표회를개
 최.

▲梁好民
 (49년 文
 理大卒·월
 代韓國論壇
 代表)「한
 국노단교양
 1차강좌를
 5월3일 오후 2시 프레스센
 터에서 개최

▲朴景華(49년 醫大卒·
 부산일신기독병원장) 5월2
 일부터 6월1일까지 불려서
 파에서 ACTIM이 주관하
 는 1차강좌를

이호 참정.

바다를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바
대 한국語교수로 취임(와)한 것은 9월부터 1년간 간임했다.

26일 평문집 「본선과 해석」



원·64년
理大卒·
校人文大
授」5월

揭示板

謹 弔

▲鄭順姬 (78年 法大卒
제주지법판사) 11월20일
제주 해안일주도로에서 교통
사고로 별세.

結 婚

원·64년
理大卒·
校人文大
授」5월



議長・本
副會長)

國會에서의 발언을
서「새政治를
설립을 출간.

同窓會館 관악홀

△이거사산 (82년 經營大卒)
군・송희목 (83년 人文大卒)
양 (6월2일 오전11시30분)
△김원식 (86년 工大卒)
군・이미선양 (6월2일 오후
2시30분)
△황진권 (85년 工大卒)
군・서순주양 (6월3일 오후
11시30분)
△맹성준 (86년 自然大卒)
군・김정숙양 (6월3일 오후

年會費 내주신분

※ 人名 밑의 원내
숫자는 각 동문들
의 卒業年度임.

◆經營大學

| |
|-----|
| 이규환 | 이규환 | 이원 | 유한재 | 유수석 | 염기호 | 안종찬 | 송소현 | 송재용 | 송규경 | 서도각 | 배병우 | 박조현 | 박일경 | 박성원 | 민찬기 | 도홍석 | 나경수 | 김환수 | 김철자 | 김주환 |
| 이창현 | 이근희 | 이민재 | 유종현 | 유영철 | 오성환 | 안창찬 | 안지아 | 신홍철 | 신영환 | 송기복 | 서태원 | 백준원 | 박재윤 | 박성택 | 박철 | 문창규 | 남기경 | 김영남 | 김태청 | 김진숙 |

[illegible]

女性

여성

한양대학교 동양대학의 부속인 동양대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부속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朴貞浩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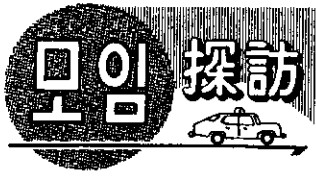
『女性은 역사상 최초의 퍼지배 집단』이라는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女性의 억압된 상황은 세계 도처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사회변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女性의 위치를 올바르게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계도 「가족법개정」 등의 굵직한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다.

看護界

두면서 90년대를 맞아 보다 「큰 목소리」가 되어 힘찬 활가를 띠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본란에서는 女性이라는 생물학적·사회적조건을 극복하고 평등한 女性의 지위를 가꾸는데 힘써온 女性同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그 첫번째로 看護界에서 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는 同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編輯者註)

卒業生 사회참여 70% 水準
學會·協會·臨床界서 지도자 역할

한양대학교 동양대학의 부속인 동양대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부속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커뮤니케이션

母校 美大동문들을
구성한 서울커뮤니케이션
(Seoul Communications · 창설 5.1)

직업인으로서의 모임이
창조되고 있는데 이
서울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도 자기개발을 이루
어 보려는 동양대 동문
들이 5월 3일 80여
C로 모인 것이다.

廣告·視覺디자인 분야서 頭角

회원 1백20명...진한 同門愛로 교류활발

한양대학교 동양대학의 부속인 동양대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부속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동양대학의 부속인 동양대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부속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동양대학의 부속인 동양대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부속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커뮤니케이션 창립총회 광경

데 스포츠가 없으면
『비록 서로
정신사의 그루터라
이별 판치고는 하지
만 건넌 배를 탄 동
반으로서 함께 못칠
마련할 수 있는 원할

한양대학교 동양대학의 부속인 동양대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부속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5%에 달하는 동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美國 Julliard
신의 국내 동맹을 위하여
성원 줄리아드大同會
회장 白樂皓모교高大교
수가 처음으로 한자
리에 모여 뜻있는 행
사를 펼친다.

오늘은 20일 예술의전
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그는 동양의 화가 30명
명의 동문모교스트라
지취 林憲政모교高大교
수)가 출연하는데 이

이로써 해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개최해 후배들을 교육의 무대에 소개하는 한편 장학금의 확충도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애호가자들의 열정적인 후원으로 가능케 하리라 기대한다.

「東茶頌」이라는 일관된 그의 작품제목이 시사하듯 茶藝를 익혀온 茶人으로서 작가는 회화를 통해 茶道三昧境界의 정신적 재휴를 모색하고 있다. 작가는 스스로 그의 작품을『心性에 닿아오는 中和된 아름다움을 無心筆에 담아 表象化한다』고 말한다.

